

경제

# “골프장·관광호텔 지나친 세금·규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 商議, '규제 개선 과제' 보고서 제출

골프장,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과 제도에 비해 불리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골프장 보유세 부담 완화', '관광호텔 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고용허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관광서비스업체

가 과도한 토지 보유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업계에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골프장에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토록 해놓고 여기에 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

합리하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올해 20%에 해당하는 원형보전지 종부세만으로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는 관광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대부분 호텔부지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1등급 호텔기준으로 국내 호텔 객실료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최상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호텔에 대한 보유세 증가’와 2004년 이후 폐지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최근 환율하락 효과’ 등을 감안해 연도별 관광호텔 서울소재 특1등급 호텔(13개사)의 적정객실료를 추정한 결과, 2004년 객실료 평균치 18만7천674원보다 올해의 경우는 66% 증가한 31만1천933원으로, 2009년에는 150% 높아진 46만9천884원으로 객실료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호텔 객실료 인상과 호텔업계의 이익감소로 이어져 국내 호텔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관광산업이 외화획득 수 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고 세

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미흡하다”며 “이는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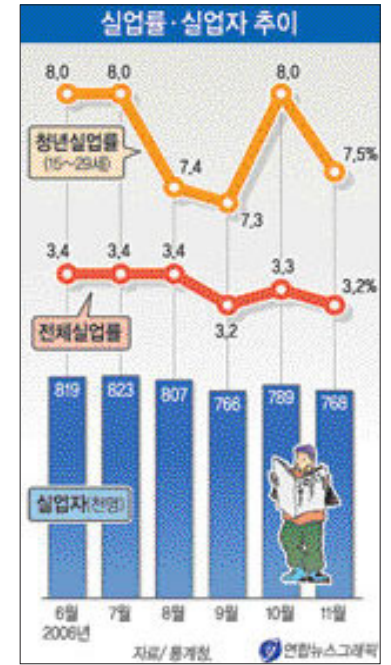
예컨대 “관광호텔 시설물의 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재산세 산정시 15%씩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장 시설물에는 부과하지 않고 관광호텔에만 부과하는 가산율을 폐지해 달라”고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또 대한상의는 일부 관광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고용할 수 없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관광호텔업의 위탁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보다 20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위탁시설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해외 및 국내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평가 주기 완화(3년→5년) 및 형식적인 평가항목 삭제 ▲대규모 관광단지 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3개월째 30만명 밀돌아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30만명을 밀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수는 2천345만 8천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6만7천명(1.1%) 늘었다. 월별 취업자 증가 수는 8월 31만8천명에서 9월 28만2천명으로 떨어진 뒤 11월까지 3개월째 30만명을 밀두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9만6천명 늘어난 가운데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7만9천명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제조업은 각각 6만2천명, 6만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농림어업, 광공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광주의 지난달 취업자는 62만2천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6천명(0.9%)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지난달 취업자가 92만6천명까지 떨어져 1년전보다 1만6천명(1.6%) 줄었다. 전남은 또 지난달 실업자가 1만2천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5천명(29.9%) 감소하는 등 실업률이 소폭 개선됐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466만7천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5만5천명(1.1%) 늘었고, 직장장가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 수도 12만3천명으로 2천명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코엑스 '전시·컨벤션의 밤' 코엑스(사장 정재관)는 한국무역협회 60주년, 코엑스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내 전시산업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애써온 회의조직자, 전시주최자, 업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저녁 그랜드볼룸에서 2006년도 전시·컨벤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 ‘지준율’로 돈줄죄기 中企 자금난 부작용

### 하나금융연구소 ‘편법대출 부추길 것’

최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금조달능력을 높여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수석연구원은 12일 ‘지준율 인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묶어놓고 은행 돈줄만 죄는 선택적 통화관리정책은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진호 연구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대출 증가에 선행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이 억제되더라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자금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은행 이외의 다른 부실 금융기관의 편법대출 행위를 부추겨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도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 가계대출보다 유가증권 운용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산운용능력이 제한되면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회전율이 높은 결재성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만약 대출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금리 급등락이나 신용유동성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 시중은행 연말정산 서류 인터넷 발급 시작

각 시중은행들이 연말정산 서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주요 연말정산 서류들이 집중되지만 차입금이상환증명서 등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있어 주거래은행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발급을 시작했다.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코너가 신설돼

홈페이지 ‘클릭’ 하면 증명서 등 출력 가능하다.

영업점에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에서 발급되는 모든 연말정산 관련 서류가 인터넷상으로 출력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

용금액 확인서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 증명서는 보안상 공유프린터가 아닌 로컬프린터에서만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홈페이지(www.shinhan.com) 인터넷뱅킹 상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www.hanabank.com), 기업은행(www.ibk.co.kr), 한 국씨티은행(www.citibank.co.kr) 등도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연말정산 증명서류 발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임대주택 부도내면 5년간 임대사업 못해

내년 3월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부도가 발생한 임

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

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주택 기금의 이자를 1년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취급된다. /연합뉴스

## ‘반값 아파트’ 도입 내년 수도권 적용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학비가 줄어 있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실시 시기, 대상 지역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변양궁 정책실장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데 이어 주택공사 한샘수 사장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시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역은 수도권 택지구획에서 내년에 실시계획이 예정된 곳으로 광교신도시(6월), 김포신도시(12월), 양주 옥정지구(12월)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직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경우 공급방식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도시외에 공공이 짓는 소규모 택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과주신도시 2단계도 내년 실시계획 완료 예정이었으나 아직 진행 중이다. 2007년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는 2008년 실시계획이 예정돼 있는 송파신도시, 평택 등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공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토지임대부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민간의 30~70% 선으로 낮추고 중산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회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상황에 따라 전세 금지 기간을 10~20년으로 탄력 조정하게 된다. 전세 금지가 끝나면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릴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세 기간 내에 팔면 주공이 정가만큼이나 불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되사준다.

주공은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 방식을 도입해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들 은행대출 환란이후 최저수준

투자를 꺼리는 대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실종되면서 올해 대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대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은 26조1천225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2조5천476억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은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신규로 자금을 빌린 것보다 기존 대출을 갚은 액수가 훨씬 더 많음을 뜻한다.

대기업의 은행 대출잔액은 2002년말 32조951억원을 기록한 후 2003년말 29조1천497억원, 2004년말 24조7천408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했으며 2005년말에는 28조6천710억원으로 반등했으나 올해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의 경우 상환만기 수요 등으로 통상적으로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의 상환 규모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올해말 대기업 대출잔액은 종전 최저치였던 2004년말(24조7천408억원) 수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의 경우 12월 한달동안 대기업 대출이 6조1천760억원이 순상환됐으며 2005년 12월의 경우 1조1천120억원이 순상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올해 40조원 이상 급증한 것과 달리 대기업의 경우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빚 갚는데 쓰거나 유사시를 대비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설비투자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는 물론 운전자금 수요마저도 거의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음식료·화학·철강·전기전자·자동차·통신 등 6개 주요업종의 국내 상위 3개 대표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작년말 9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 천연나라, ‘다시콩 골드’ 출시



건강식품 전문생산업체인 (주)천연나라(대표 조규숙)는 미네랄의 보고 청국장과 다시마, 마늘을 혼합해 환율이 만든 ‘다시콩 골드’를 내놨다.

이 제품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줌으로써 신진대사를 조율, 체내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성분간 보완작용을 통해 흡수율을 높였으며, 특히 성분 중 다시마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돕는다. 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에 효과적이다. 판매가격은 500g ‘다시콩 골드’ 4만9천500원, ‘다시콩’ 3만9천500원 문의(02)598-1005, http://www.천연나라.com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인터넷방송	웹디자이너 또는 홈페이지 구축 가능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70-7017-1229
기문서비스(주)	기업은행 사무지점(광주) 청원경찰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8	02-2252-4370
한림제약(주)	제약영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800~3000	12/18	02-3489-6142
(주)광주드림 비플러시스템본부	(주)광주드림 드림커뮤니케이션 시크 디자이너 모집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12/20	062-650-2057
글로벌모터스(주)	리셉션 및 사무 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42-628-6080
(주)해주주택건설	경리부 정규직 남/여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0	062-675-4900
한국기술원	LED특허 분석지원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606-9306
한국기술개발(주)	토목현장 소장 및 공사 사원 모집	고졸/경력4년	회사내규	12/22	062-223-5036
(유)중도건설	정규직 토목기사 경력직 채용 공고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12/22	062-511-1135
삼성화학(주)	품질보증부 부속재 채용 공고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12/22	062-951-8001
광주여자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관리 조교 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950-3574
전남철강(주)	사무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22	062-576-0615
삼성엔탈	[삼성RT사업부] 관리직 및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522-0839
윤성생명여고	[영어교육영문학교]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22	062-526-056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